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3 Vol. 5

입춘대길 [立春大吉]

3월

새해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봄'
그리고 대학의 봄이자
대학스포츠의 봄이 시작되는 3월
누군가에게는 첫걸음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그 3월을
대학스포츠웹진이 함께 합니다.

커버스토리 신궁을 꿈꾸는 소녀 경희대학교 강채영

동아리열전 특별한 소통의 첫 걸음, 휠체어 농구

視視各各 코치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



파릇파릇한 새싹이 태어나고

꽃꽂이 새내기들의 입학식이 있는 <3월>

대학스포츠도 <시작>을 준비합니다.

Contents

04



커버스토리

신궁을 꿈꾸는 소녀
경희대학교
강채영

09



스포츠라이트

클래스는 이어진다.
실력도 1등, 인성도 1등
경희대학교 핸드볼부

11



대학리그소식

대학축구 새내기
미리 보는 2015 대학농구 신입생 노트
15학번 대학배구 새내기 사용설명서

페이스메이커

도전! 스케이트보드

18

동아리열전

특별한 소통의 첫 걸음, 휠체어 농구

20

視視各各

코치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

22

멘토를 만나다

‘삼성썬더스, 우리은행’ 장내 아나운서 박수미

26

그때 그 시절

아시안컵을 뒤흔든 송실대 듀오 박주호, 이정협의 스토리

28

KUSF NEWS

30

취재 후일담

31

신궁을 꿈꾸는 소녀 경희대학교

강채영

3월 대학스포츠 웹진의 테마에 맞는 선수를 물색하던 중, 한 양궁선수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막 경희대에 입학하는 15학번 새내기 양궁선수 강채영. 새내기지만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세계대회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당당한 예비 신궁(神弓)이었다. 대학 생활을 만끽하기도 전에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제 막 대학생으로도 국가대표로도 첫걸음을 딛는 그녀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호기심에 시작한 양궁, 운명이 되다

강채영과 양궁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지나가다가 양궁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하게 된 것. 흔하디 흔한 스카우트 제의나 권유도 없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양궁은 이제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강채영에게 양궁은 어떤 의미일까? “양궁이요? 제 밥줄이죠. 양궁을 하지 않았으면 무얼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운동도 못 할 것 같고, 공부했으면 별로 잘 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시작한 양궁이 항상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때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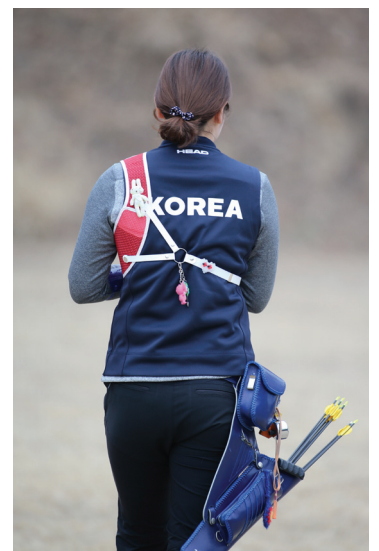


기 네 명 중 혼자서 메달을 따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기도 했다. 무려 2년간 이어진, 강채영이 기억하는 양궁인생 최대의 슬럼프였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중학교 3학년이 된 강채영은 지난 2년간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본인 스스로도 ‘리즈 시절’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서 4관왕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 “그 뒤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때 했던 만큼 다른 시합 때 그만큼 못하니까, 스스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뿌듯했죠.” 그만큼 만족을 모르고 정진해왔기에, 지금과 같이 국가대표 선발을 다룰 만큼 발전했을 것이다.

그럼 혹시 슬럼프를 극복한 그녀만의 양궁 비법은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의외로 생각 없이 쏠 때가 제일 잘 들어간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사실은 이렇다. 양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멘탈이 중요한 종목이다. 바람 뿐만 아니라 소리, 옆의 사수가 활시위를 놓는 행위 하나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고, 과녁을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면서 느낀 게 생각이 많으면 잘 안 돼요. 잘해야 한다는 욕심도 부담이 되죠. 그냥 생각 없이 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녀만의 비법은 바로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발사속도. 개인전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옆의 사수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쏘는 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에 좋은 것 같단다.

나의 또 다른 이름, 경희대 15학번 새내기

강채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예비 신궁이기 이전에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는 새내기 신분이다. 그런 그녀에게도 대학생활은 생각만 해도 두근두





근해지는 나날이다. 인터뷰가 진행될 시점,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OT가 한창이었다. OT는 처음으로 동기들을 만나고,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기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는 동기들과 친해지는 걸 잠시 미루고, 꿈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OT를 못가서 정말 아쉬워요. 가보고 싶었고, 또 가서 동기들과 친해지고 싶기도 했구요. 저랑 같이 입학하는 양궁부 동기도 제가 못가서 자기도 혼자 가야된다고 해요. 많이 기대했는데…” 물론 꿈을 위한 선택이지만 다른 동기들과 시작을 함께할 수 없는 건 역시 아쉽기만 하다.

사실 모든 양궁선수가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고교생 신분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유명세를 모았던 한 선수는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실업팀에서 뛰고 있다. 강채영은 어떤 이유로 대학진학을, 또 경희대를 택하게 된 것일까? “제가 울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서울로 와보고 싶었어요. 실업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주변에서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죠. 또 선수생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생각해서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선배들이 너무 잘 해줘서 경희대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그녀. 평소 여가시간에는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홍대와 강남일대는 이미 가 봤는데, 아직 가로수길은 못 가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혹시 곧 시작될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은 없을까? 질문을 하자 그녀 역시 새내기다운 수줍은 소망을 드러냈다.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CC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오면 왠지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 느낌. 만약 CC가 되게 된다면 주변에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밀로 해야겠죠?” 물론 이렇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돼요. 학점도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잘 나와야 하는데…” 대담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공사도 수업에 들어가고 평가받는 것에는 두려움이 앞서는 모양이다.

국가대표, 꿈꿔 왔던 그 이름

강채영은 작년 10월 14일부터 3일간 치러졌던 2015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83점을 쏘며 쟁쟁한 선배인 윤옥희(79점)와 기보배(77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두 선배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니 만큼 화제도 많이 되었다. 그녀는 그 순간은 이렇게 떠올렸다. “언니들을 원래 이기고 있지는 않았어요. 언니들이 더 좋은 점수였는데 선발전 마지막 날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잘 들어갔더라고요.”

하지만 강채영에게 태극마크는 쉽게 잡히지 않는 꿈이었다. 고교부에서 같이 기대주로 꼽혔던 최미선이 이미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린 것에 비해 강채영은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을 뿐,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후보에 오른 건 처음이다. 그만큼 절실했고, 또 지금도 너무나 간절한 태극마크다. 하지만 중압감 역시 그녀를 짓누른다. “이번에 제가 원래 들어올 선수는 아니었어요. 하



다 보니 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선발전에서 떨어지면 저는 실력이 안 되는 거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냥 대표 8명에만 들고 싶어요.”

태극마크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은 그녀지만, 아직까지 큰 산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강원도 동해에서 3월 16일부터 8일간 치러질 국가대표 3차 선발전. 2014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8명의 선수와 이번에 선발전을 뺀 8명이 같이 경기를 치러 최종적으로 8명만이 국가대표로 남게 되는, 그야말로 진검승부다. 현재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이유도 이 선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태릉선수촌 생활은 어떨까? “거의 하루 종일 활만 쏘다가 오후에 한 타임은 웨이트나 코어 운동을 하고, 수요일에는 운동장을 뛰기도 해요. 다른 데서 훈련할 때보다 체력적인 운동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훈련결과표를 살펴보니 하루에 500개에 달하는 화살을 쏜 날도 있을 만큼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역시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열망일 터. 특히 올 국가대표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리. 강채영은 그 자리에 서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양궁을 시작했던 이야기부터 곧 시작될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 그리고 국가대표에 대한 중압감과 열망까지. 강채영은 대학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영락 없는 소녀의 모습이다가도, 양궁에 대해 말할 때는 진지한 공사의 모습을 보이며 가능성과 꿈을 가진 20살 청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강채영은 지금도 활시위를 당긴다. 서울이 아직 낯설기만 한 소녀가, 언제고 태극마크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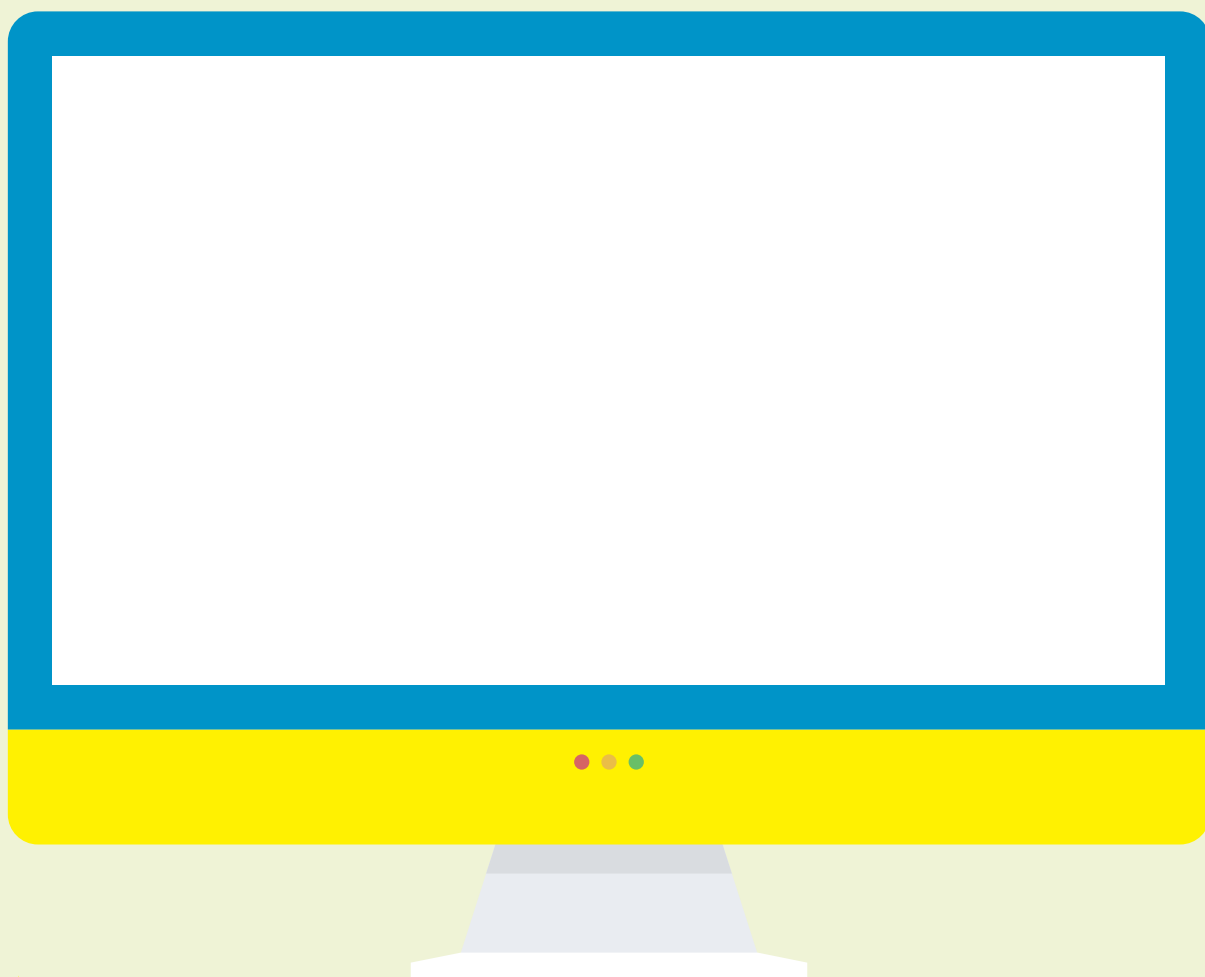
글/

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신궁을 꿈꾸는 소녀
경희대학교

강채영



클래스는 이어진다.

실력도 1등, 인성도 1등 경희대학교 핸드볼부



경희대 클래스

경희대 핸드볼부는 지난해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전통의 라이벌 원광대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실 경희대 핸드볼부의 실력은 작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김만호 감독의 말대로 언제나 ‘상위 클래스’였다. 작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실업팀들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뽐내며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3년간의 대회 성적만 보더라도 우승만 세 차례와 절대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는 꾸준한 실력의 팀이다.

매일을 실전처럼

그리고 올 시즌도 ‘클래스’를 잃지 않기 위해 경희대 핸드볼부는 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고등부 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경희대 핸드볼부와 함께 합숙을 진

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 2월 11일, 매일 훈련과 연습게임을 통해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희대 핸드볼부를 찾아가 보았다. 마침 이날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핸드볼장에서 연습게임이 진행 중이었다.

형만한 아우 없다.

이날 펼쳐진 남한고교와의 연습게임도 경희대의 압승이었다. ‘형만 한 아우 없다.’라는 속담처럼 ‘형’ 경희대와 ‘아우’ 남한고교의 실력 차이는 숨길 수 없

었다.

남한고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경희대는 비시즌에도 날렵했다. 사실 올해 청주공고 출신의 정광일 등 실력 좋은 신입생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부상으로 빠져버려서 걱정을 내비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의 전력은 갖춰져 가고 있었다. 김만호 감독이 얘기한 올 시즌 목표도 그랬다.

“올해 선수들이 관찮은데 일단 환자들이 많아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1, 2등 하는 상위 클래스 팀이니까 잘해봐야죠. 조금하게 전반기에 성적





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끌어올려서 후반기 우승을 노려볼 겁니다.”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핸드볼

사실 축구, 배구, 농구와 같은 종목에 비해서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다. 하지만 핸드볼의 매력은 실내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스포츠만큼이나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는 점이다. 실제로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가면 속도감도 속도감이지만 경기 내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선수들의 기합소리는 경기에 생동감을 더한다.

이쯤에서 대학스포츠 웹진 독자들

에게 전하는 경희대 핸드볼부 주장 김준형(7, 레프트윙)의 한 마디. “핸드볼도 다른 스포츠만큼이나 박진감 있고 또 핸드볼만의 묘미가 있으니 독자분들이 핸드볼 경기를 한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팀, 끈끈한 팀

김만호 감독과 주장 김준형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한 가지는 경희대 핸드볼부의 팀워크였다. 경희대 핸드볼부의 특징을 조직력과 팀워크라고 꼽을 만큼 경희대 핸드볼부는 끈끈하다.

주장 김준형은 올 한해 경희대 핸드볼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팀 분위기와 팀워크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1학년과 4학년이 거리감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같은 팀원들끼리 서로 의지가 될 수 있고 저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

실력도 좋지만 김만호 감독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인성이다. 사실 실력만 본다면 선수의 인성이 좋든 나쁘든 인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학교에 소속된, 사회에 나가지 않은 학생선수들이기에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경희대 핸드볼부의 자랑거리를 딱 한 가지만 말하라면 역시 인성이다.

“우리는 애들이 착해요. 인성교육이 잘되어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팀은 다른 팀들보다 선수들끼리, 그리고 저하고도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인성이고, 경희대 핸드볼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췄기에 대학 핸드볼부 상위 클래스다. 경희대 핸드볼부는 올해에도 좋은 선수들과 끈끈한 팀워크를 갖췄기에 2015년에도 그들의 클래스는 새롭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

글·사진/

김보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만호 감독



주장 김준형

대학축구 새내기

단단한 수비벽으로 유명한 황소군단 건국대학교에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공격자원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바로 군산제일고 출신 원기종이 그 주인공이다. 고등학생 선수라는 타이틀을 떼어낸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겸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덴소컵 선발전(이하 춘계대회)에서 주전을 꿰차고 있는 그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저돌적인 플레이를 선보인다. 동시에 침착성까지 갖춰 문전 앞에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TSV 바이엘04 레버쿠젠의 손흥민처럼 빠르지만 정확한 드리블을 구사하며 어느 위치에서든 시원한 슈팅능력을 선보이는 선수로 크게 성장하고 싶다는 원기종. 녹색 유니폼을 입은 채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건국대학교
원기종
(18, FW)/ 178cm/ 군산 제일고



“우선 어렸을 때부터 오고 싶었던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입학하길 원하셨던 건국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직은 대학축구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성실히 배우고 고쳐나가면서 팀을 위해 뛰겠습니다. 많은 어시스트를 해내고 멋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건국대 파이팅!”

U-18 대회의 주전 센터백으로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은 김석진은 대학축구의 강자 한양대학교의 15학번 새내기가 됐다. 1학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피지컬과 패싱 능력 그리고 드리블 능력까지 완벽하게 겸비하고 있는 그는 중앙수비수 역할에 최적화되어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석진은 상대방의 공을 빼앗은 후 공격 진영까지 치고 올라가는 능력, 일명 빌드업(build-up)에 능해 벌써부터 한양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김석진
(20, DF)/ 188cm/ 영등포공고



“한양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던 이유 때문인지 한양대의 유니폼을 입고 대학생으로서의 첫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 대표팀을 다녀온 것보다 더 긴장되고 떨립니다. 고등학생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한양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잘’하는 선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축구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안은산은 안암골 호랑이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그의 장점은 좋은 드리블 능력과 양발 모두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자신 있는 슈팅을 선보이는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울산 현대고 시절에는 제69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겸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5경기 8골로 득점왕을 수상해 득점력까지 인정받았다. 이번 춘계대회에서도 골을 성공시키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난 시즌 경쟁 상대 없이 완벽한 축구 강호로 군림하던 고려대에 빠르게 녹아든 안은산은 대학축구의 ‘新’ 에이스이다.

고려대학교
안은산
(15, MF)/ 178cm/ 울산 현대고



“대학 축구의 경기 흐름 자체가 빠르고, 상대 선수들의 피지컬이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좋다 보니 동계 훈련할 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오랜 목표였던 고려대에 들어와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고대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경기장을 나설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하루빨리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 고려대의 승승장구를 돕고 싶습니다.”

홍익대에서 돋보이는 신입생은 부경고 출신의 센터포워드 최병찬이다. 최병찬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슈팅. 고등학교 시절 리그 득점왕을 했을 정도로 득점력 좋은 선수이다. 종종 미드필드와 윙 등의 포지션을 소화하기도 하는 멀티플레이어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홍익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홍익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대학교에 올라온 만큼 실력을 더 키우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학년이지만 형들과 함께 경기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운동장에서 이상기의 장점은 힘과 스피드, 그리고 신입생답지 않은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다. 이상기는 포항제철고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고교 시절을 보냈다. 전국대회 3관왕과 준우승 1번 등 모든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이상기는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영남대에 입학해 다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지만 운동장에서만큼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당찬 플레이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경쟁하고 싶습니다.”

박상욱은 볼컨트롤, 공간을 향한 움직임, 골 결정력까지 공격수로서의 장점들을 모두 갖춘 센터포워드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의 슬럼프가 있었지만 3학년이 된 박상욱은 경남고등권역리그에서 16경기 1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제 대학생의 된 저의 목표는 저희 팀 선수가 4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경기를 뛰는 게 목표예요! 경기를 뛰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인정받아야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치지 말고 전국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글·사진/

박수지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보미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미리 보는 2015 대학농구 신입생 노트

‘드래프트’란 그 자체로 시작이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뀐다.

한 팀에게 주어진 시간 10분, 풀어낼 과제는 단 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영화 「드래프트 데이」는 미식축구 구단 브라운즈가 드래프트 1픽 하나로 1라운드 상위권 선수 3명을 모두 손에 쥐게 되는 짜릿함을 이야기한다.

브라운즈는 1픽을 가지고도 대학 무대 MVP가 아닌 전체 7순위 정도의 선수를 선발하면서 드래프트의 판을 뒤흔든다. MVP를 뒤로 한 ‘터무니없는’ 브라운즈의 결정은 논란과 비웃음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6번째, 7번째 지명권을 가진 팀과 트레이드를 단행, 전도유망한 선수들과 다음 해 지명권까지 획득하는 ‘잭팟’이 터지는 순간, ‘무’는 비로소 ‘유’가 된다.

브라운즈와 같이, 모든 프로팀은 대학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잭팟’을 터뜨리기를 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새로운 선수들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해마다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것의 성공 여부가 팀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러한 유망주의 중요성은 대학 무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학 무대에서도 신입생 영입 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다.

과연 올해 신입생 영입 경쟁에서 웃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할 팀은 어느 팀일까. ‘미리 보는 2015 대학농구 신입생 노트’를 준비해봤다.

전현우

울산 무룡고
포워드
195cm

고려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통합우승

무룡고와 U-18 대표팀에서 주장과 에이스의 역할을 맡았던 선수. 고교 시절 주 포지션인 슈터뿐 아니라 팀 내 최장신자로서 포스트플레이까지 맡아 전천후 플레이어로 활약했다. 올해 문성근의 졸업 이후 2번을 맡아 팀의 득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고교 시절 골 밑 수비를 맡아 왔기에, 외곽에서의 움직임을 익혀야 하는 약점이 있다. 선배 최성모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동고동락했기에, 둘의 호흡이 기대된다.

▶**고려대 신입생 리스트** : 전현우(울산 무룡고), 장태빈, 박준영(이상 송도고), 유태민(홍대부고), 유상준(배재고), 김한성(안양고)



이채훈

명지고
센터
203cm

연세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2위

사실 이채훈은 신장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크게 주목받아온 선수는 아니다. 같은 학년 동기들 중 최장신이긴 하나 고교에서 빅맨은 한 학년 아래의 16학년들이 주목받고 있고 명지고의 에이스 역할도 나란히 연세대로 진학한 신우형에게 있었다. 하지만 졸업한 김준일의 공백을 메꿔야 하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채훈에게도 일말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 고교시절에도 수준급 빅맨들을 상대로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의문부호가 남지만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시작했고 줄곧 센터역할을 해왔던 지라 기본기가 탄탄하고 여러 플레이에 두루두루 능하다는 평가. 왼손잡이인 것도 이점이다.

▶**연세대 신입생 리스트** : 김성빈(휘문고), 김훈(홍대부고), 신우형, 이채훈(이상 명지고), 천재민(부산중앙고)



권성진

계성고
가드
184cm

경희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3위

권성진은 고교농구를 제패했던 대구 계성고 출신으로 최창진, 최승욱, 맹상훈 등 많은 선배들이 재학 중인 경희대를 선택했다. 키가 조금 작다는 평이 있지만, 고교 시절 빠른 슛 타이밍과 뛰어난 3점슛으로 계성고의 주포로 활약했다. 게다가 계성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 신장이 작아 한 발 더 뛰는 스타일의 농구를 해왔기 때문에 체력과 수비가 탄탄하다. 올해 경희대는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지원을 했다. 따라서 주전들의 파울트러블이나 체력을 보강해 줄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신입생 리스트** : 권성진(계성고), 이성호, 임태혁(이상 홍대부고), 강명국(울산무룡고), 하경현(삼일상고), 김세윤(제물포고), 정해찬(경복고), 권순명(양정고)



변준형

제물포고
가드
187cm

동국대학교_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4위

2015 신입생 선발의 '위너'는 단연 동국대다. 동국대는 포스트진에 비해 가드포지션이 약점으로 꼽혀온 팀. '고교 최대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피드와 센스, 공격력까지 갖춘 변준형은 동국대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감독의 말에 의하면 승부사기질도 상당하다고. 다만,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템포조절과 수비에서는 다소 미숙한 모습도 보인다. 대학리그 출범이후 최고 성적 4위의 동국대다. 만만치 않은 성적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쉬웠던 2%. 변준형이 신인의 껍데기를 벗고 동국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주목해보자.

▶**동국대 신입생 리스트** : 변준형, 홍석영(이상 제물포고), 정호상, 백승환(이상 동아고), 공두현(홍대부고)



서현석

여수화양고
센터
200cm

건국대학교_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5위

건국대로 진학하는 서현석은 원래 높이뛰기 선수였지만 급속히 자란 키로 인해 스카우트를 받았고, 고등학교에 와서야 종목을 농구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만큼 구력이 긴 동기들에 비해 기본기가 약하고 공격웍션 역시 다양하지 못하다. 하지만 덩크슛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탄력이 좋고 리바운드 능력도 좋아 곳곳에 제격이다. 과연 서현석이 유영환-장문호-자신으로 이어지는 고공라인을 구축하며 건국대에 몇 년간 이어진 높이의 한(恨)의 풀 수 있을까?

▶**건국대 신입생 리스트** : 광병우(휘문고), 김도현(전주고), 김재훈, 서현석(이상 여수화양고), 이상훈(안양고)



김기원

마산고
가드
172cm

한양대학교_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6위

안양 KGC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인 김기원의 동생이다. 친형과 플레이 스타일에 비슷한 점이 많다. 패싱 센스가 좋고, 경기운영에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본래 정통파 포인트가드 스타일을 띄고 있지만, 득점을 해결 할 선수가 없으면 자신도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가드 포지션의 신장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단신 가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약점을 보인다. 한양대의 육상 농구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양대 신입생 리스트** : 김기원(마산고), 배경식(제물포고), 박민상, 김윤환(이상 울산무룡고), 김기범(경북고), 김호진(송도고)



정진욱

부산중앙고
가드
186cm

상명대학교_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7위

이상윤 감독은 올해 '유망주'보다는 '즉시전력감' 탐색에 집중했다. 부산중앙고 출신인 정진욱은 그런 면에서 상명대 신입생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 정진욱은 '제 2의 천기범'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리딩능력이 좋다. 볼을 다루는 능력도 수준급. 다만 많은 득점을 올리던 에이스 이현석이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공격화력이 약하다는 점이 생각보다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수비가 좋고 안정감있는 플레이를 구사하던 정성우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상명대 신입생 리스트** : 정진욱(부산중앙고), 전용관(영지고), 정찬영, 김진업(이상 안양고), 김태진(삼일상고), 이진용(광신정상고)



강바일

양정고
포워드
195cm

중앙대학교_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8위

동생 강호일과 함께 몽골에서 귀화했다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운동능력이 좋아 점프력이 뛰어나고 그만큼 체공시간이 길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긴 체공시간을 이용한 점프슛과 돌파에 재능을 보인다. 다만 몸싸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골밑 수비에서 약점을 보인다. 팀플레이보다 개인플레이 위주의 모습을 보이는 점은 고쳐야 할 점으로 뽑힌다.

▶**중앙대 신입생 리스트** : 강바일, 최석현(이상 양정고), 김도경(경북고), 서상현(여수화양고), 박원중, 강병현(이상 동아고), 신민철, 편창범(이상 송도고), 이상진(대전고), 정재현(광주고)



표경도

광신정산고
포워드
195cm

명지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9위

명지대는 공개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때문에 구체적인 선수 명단이 나오기까지 합격자를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광신정산고 출신의 표경도 만큼은 올해 명지대 전력을 메꾸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표경도는 중거리 슛이 좋은 편이다. 그간 외곽의 화력이 약했던 명지대로서는 반가운 재원이다.

▶**명지대 신입생 리스트** : 표경도(광신정산고), 우동현(동아고), 김순찬, 오준석(이상 명지고), 김태균(광주고)



박준형

대전고
가드
180cm

성균관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10위

성균관대는 주전가드가 모두 졸업하며 비상에 걸렸다. 게다가 남아있는 가드 중 작년엔 백업이라고 할 만큼 출전한 가드도 없다. 그래서 15학번 신입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듯하다. 박준형은 대전고 출신의 야전사령관이다. 스피드가 빠르고 기본적인 운영능력은 준수하지만 완급조절이 부족하다는 평. 하지만 얇은 가드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출전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대학리그 연착륙에 성균관대의 중위권 도약이 달려있다.

▶**성균관대 신입생 리스트** : 김정훈(용산고), 박준형(대전고), 이인근(제물포고), 최희철(마산고)



원종훈

광신정산고
가드
175cm

단국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11위

원종훈은 정통 가드 스타일로 최승민-최승훈 형제의 졸업으로 약해진 가드 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U-16 남자대표팀, 2012년 U-17 남자대표팀으로 활약했으며, 광신정산고의 리더로써 2014년 대통령기에서는 최우수 선수 상을 수상, 광신정산고를 우승으로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스피드도 빠르고 패스도 좋지만, 외곽슛의 정확도는 높여야 한다. 다만 단국대는 빅맨 영입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작년 리바운드 상을 수상하며 단국대의 골밑을 책임지던 하도현의 휴학으로 골밑에 대한 걱정이 우려된다.

▶**단국대 신입생 리스트** : 원종훈, 이동주(이상 광신정산고), 양상운(전주고), 이재원, 권시현, 이도훈(이상 천안쌍용고)



조민기

대전고
센터
200cm

조선대학교_ 2014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12위

지난 시즌까지 교체할 빅맨이 한 명도 없던 조선대는 이호연만이 홀로 고군분투해왔다. 이호연이 파울트러블에 걸리면 경기를 풀어나가기 힘들었는데, 조민기가 가세했다는 점은 조선대 농구부의 기둥이 하나 더 생긴 격이다. 조민기는 기본기가 좋지만, 플레이 반경이나 파괴력은 약하다는 평. 이호연이 홀로 골 밑을 지키며 힘든 시즌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만큼 성장하기도 했다. 조민기가 이호연의 파울트러블에 대한 걱정도 덜어주고, 성장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조선대 신입생 리스트** : 조민기(대전고), 최준수(광주고), 김승현, 이상민(이상 삼일상고)



어떤 지도자는 즉시 전력감을 찾지만, 어떤 지도자는 원석을 찾는다. 각자가 찾는 인재는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아마추어 대학팀은 즉시 전력감도, 원석도 만들어낼 수 있는 보고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이 곧 하나인 농구. 12개 대학의 '신입생 드래프트 데이'에서는 어느 팀이 진정한 보석을 차지한 것인지, 다가오는 2015 대학농구 정규시즌을 통해 확인해보자.

글 · 사진/

고금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혜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15학번 대학배구 새내기 사용설명서

프로배구가 끝나가서 아쉬운 당신! 봄 배구의 대명사, 대학배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추위가 녹은 잔디에 새싹이 자라나듯 15학번 새내기들이 대학배구 들판에 찾아왔다.
이번 시즌 꽃을 피울 새나기를 알아보자.



중부대 긍정맨!

이지훈

95년 12월 8일생. 180cm에 67kg. 포지션은 리베로. 배구는 나의 평생 친구!

남성고를 졸업하고 중부대의 새나기로 입학한 이지훈. 신입생이 된 그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같은 팀 에이스 지원우가 대학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후문. 주위 사람들은 이지훈을 '순간 움직임이 빠른 선수'라 평가한다. 자신 있는 플레이는 블로킹으로 막힌 공을 바운드하는 것. 반면 리시브가 단점이자 보완점이다. 올 시즌 목표는 청소년 태극마크를 다는 것. '긍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이지훈의 롤모델은 OK저축은행의 송희채. 포지션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그의 리시브 실력을 닦고 싶다고 한다. 자신만의 매력으로는 '귀여움'을 꼽았다. 올 시즌, 대학배구계의 헤리는 탄생할 것인가! Coming Soon!



성균관대 스마일 보이!

황택연

96년 11월 12일생. 190cm에 77kg. 포지션은 세터. 배구는 나의 청춘!

인하대 최천식 감독마저 탐냈던 대형 신인. 다수의 러브콜을 받은 그의 선택은 성균관대였다. 장신 세터(190cm)인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다. 서브와 수비마저 가능한 만능 세터라는 점. 토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황택연답게 보완하고 싶은 점 또한 블로킹이라는 의외의(?) 답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라이벌은 바로 홍익대 김형진. 지난해 10월, 함께 청소년 국가대표로 동고동락한 적이 있는 그와 이제 선의의 라이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평소 웃음이 많아 바보가 아니냐는 핀잔까지 들을 만큼 '황택연-웃음=0'이다. 다재다능한 황택연을 보니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설은 진실이 아닐까 싶다.



홍익대 4차원 엉뚱 루키!

한성정

96년 7월 25일생. 197cm에 85kg. 포지션은 레프트. 배구는 나의 부모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본인도 없듯이 배구 또한 삶에 있어서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전한 한성정. 정녕 96년생이 맞는가? 배구계에 소문난 효자답다. 홍익대의 최장신(197cm)을 맡고 있는 그는 사실 고교 1학년 때까지 센터였다. 키와 센터 출신 레프트라는 사실까지 꼭 닮은 경기대 황경민이 절친이자 라이벌. 아버지 같은 리더십 박종찬 감독과 다정다감 리더십의 주장 이시몬 아래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는 한성정은 대학리그 우승과 더불어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시즌 목표를 밝혔다. 한편, 옥천고 시절 주장을 할 만큼 우직한 그이지만 특유의 유머와 엉뚱함으로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 중이라는 후문이다.



경남과기대
새내기 에이스!

김인혁

95년 7월 14일생. 190cm에 78kg. 포지션은 레프트. 배구는 내가 가야할 단 하나의 길!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했던가! 경남과기대 김형태 감독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수차례의 설득을 거듭했다. 대학리그 데뷔와 동시에 좌충우돌 경남과기대의 에이스를 맡게 된 김인혁. 그는 지난해 진주동명고의 2관왕을 이끌며 최우수 선수에 오른 에이스 주장 출신이다. 훈훈한 외모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은 누나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의 강점은 넘치는 파워! 시원시원한 공격은 물론, 세트 당 1개 이상의 서브에이스를 터트려내며 코트위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선수다. 그의 롤모델은 진주동명중·고 선배인 한국전력 빅스톰의 전광인. 전광인처럼 공격과 수비 모두에 능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내기 에이스 김인혁이 이끄는 경남과기대의 2015년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대 파이팅의 원천

황경민

96년 4월 10일생. 196cm에 82kg. 포지션은 레프트. 배구는 나의 동반자!

고교시절 흡사 용병을 방불케 하는 높은 타점으로 리그를 집어 삼켰던 황경민. 그의 출신고교인 송림고 출신의 선배가 많은 경기대학교에 진학한 덕분에 대학 생활 역시 완벽히 적응했다. 1학년 중 유일하게 베스트 멤버에 이름을 올린 그의 목표는 단연 우승이다. 신인왕의 자리 역시 차지하고 싶다는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같은 방을 쓰는 형들의 사랑을 받아 나날이 고공성장하고 있는 그는 평소 코트 위에서 파이팅이 넘친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의 매력이다. 곧 개강을 앞둔 그는 하루빨리 대학교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는 모범생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반짝이는 그의 두 눈은 경기대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인하대 활력 비타민!

이상혁

96년 3월 23일생. 170cm에 60kg. 포지션은 리베로. 배구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인천에 상륙한 최초의 진주 출신! 동일 포지션의 선배도 없는 낯선 환경에 놓였지만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자 경험'이라는 새내기답지 않은 연륜을 과시했다. 나경복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먹는 것부터 정신적인 부분까지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그는 리베로다운 남다른 순발력을 자랑한다. 롤모델인 국가대표 리베로 정민수(現 우리카드)와 '원손잡이'라는 흔치 않은 공통점을 가진 것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어깨너머 보고 자란 그의 뛰어난 수비 실력 또한 빼놓았다. 리베로 특유의 파이팅으로 활기차고, 다소 엉뚱한 매력까지 가진 이상혁. 인하대의 우승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도 좋다.

글/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본인제공,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페이스메이커

기획의도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에서
기준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앞으로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전! 스케이트보드



유행은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 패션은 물론이거니와 전자제품, 드라마 그리고 이동수단에도 어김없이 유행이 존재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열풍이 불었다. 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판판한 바퀴를 가지고 있어 스피드를 내기 어려웠던 롤러스케이트에서 진일보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었다. 이 다음으로 유행을 탄 건 킥보드였다. 한 발로 땅을 차서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뻗어 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행이 얼마 전 시작되었다. 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를 보고자란 세대에게 '스케이트보드'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였다. 게다가 저항, 자유, 젊음 등의 이미지와 상응하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스케이트보드의 매력, 종류〉

오로지 두 발만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스케이트보드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스케이트보드는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서핑하는 모습을 보고 육지에서도 서핑을 즐기고 싶어 탄생한 스포츠다. 미국에서만 유행하던 스케이트보드가 1980년대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알려졌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어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날, 세계인이 즐기는 스케이트보드는 종류도 다양하다. 먼저, 스탠다드보드는 기술도 가능하고 주행도 편리한 가장 기본적인 보드다. 두 번째로, 롱보드는 '데크(Deck)'라고 불리는 발판이 길고 바퀴도 커서 스탠다드보드 보다 훨씬 안정감 있다. 스케이트보드에 익숙해졌다면 커다란 보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춤을 추는 '롱보드 댄싱'에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타는 크루저보드는 주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스케이트보드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거리를 주행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기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전문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스케이트보드의 매력이 '트릭 (스케이트를 탄 채로 구사하는 기술)'에 있다고 말한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해야 동작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데, 기술을 성공함으로써 오는 성취감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구사하는 '트릭'의 종류〉

푸시오프	발로 땅을 밀어서 앞으로 가는것. 가장 기본적인 가속방법
턱택	앞쪽 트럭을 들어올리거나 끌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
샤빗	보드 위에서 몸은 돌지 않고 보드만 180도 돌리는 기술
알리	테일을 밟아 팔을 쳐서 공중으로 점프하듯 뛰어 오르는 기술
킥플립	알리를 하는 중에 앞발 발가락부분으로 보드를 회전시키는 기술

*데크 : 발을 올려놓는 판판한 부분

*트럭 : 데크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노즈, 테일 : 스케이트보드의 양끝 부분, 노즈가 좀 더 길고 높게 뻗어 있음

〈안전〉

스케이트가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혹은 기술을 하려고 할 때는 더군다나 동작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헬멧, 무릎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를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스케이트보드는 빠르다. 손으로 지탱할 부분도 없이 발로만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 있을 때 부상을 입기 쉽다. 특별한 제동장치도 없기 때문에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 특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되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고, 바닥에 돌 등의 이물질이 없는 스케이트보드 전용공간에서 보드를 타는 것이 좋다.

사진/ Arim Koh

Information

보라매공원 X-GAME PLACE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전화번호 : 02-2181-1190



독섬유원지 X-GAME 장

주소 : 독섬한강공원 내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전화번호 : 02-3780-0521

올림픽공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전화번호 : 02-410-1114



특별한 소통의 첫 걸음, 휠체어 농구

패럴림픽의 꽃 휠체어 농구.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휠체어 농구는 인식이나 여건이 아직 유럽에 비해 좋지 못한 스포츠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휠체어 농구선수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바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물리치료학과 소모임 〈피닉스〉가 그 주인공이다.

학과 특성상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에게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조상현 교수의 지도 아래 2003년부터 휠체어 농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휠체어 농구의 비(非)장애인부 중에서 유일하게 체대생이 아닌 팀 〈피닉스〉. 이들은 휠체어 농구를 직접 하면서 휠체어 농구를 홍보하고, 장애인들과 마음을 나눈다. 그들의 속사정을 듣기 위해 서울 사당 근교의 카페에서 2012년도 피닉스의 운영진으로 활동했던 강성민 부주장을 만나보았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스포츠라 생각할 수 있는 휠체어 농구. 입문의 계기를 묻자 처음에는 다른 운동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답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해 보니

팀원들 간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또 자원봉사의 취지를 갖고 시작했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휠체어 농구는 굉장히 거칠고 역동적인 스포츠다. 휠체어끼리 부딪치는 모습을 볼 때면 부상의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상의 정도 또는 빈도에 대해 묻자 휠체어끼리 부딪치고 넘어질 때는 안전바가 몸을 지탱해줘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답해 주었다. 부상의 종류도 장애인부와 비장애인부는 차이를 보인다는데, 비장애인부 선수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한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 휠에 손이 끼는 부상을 종종 입는다고 한다. 이와 달리 장애인부 선수들의 경우 오랜 시간 하체를 고정시키고 플레이하다 보니 종 욱창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같은 휠체어를 타고 같은 높이



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장애인 선수들과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좋은 질문이라며 답을 이었다. “선수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허리 아래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부는 그런 제약이 없기에 똑같이 다리를 뻗는 하더라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죠. 장애인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하게 운동을 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까지 모두 체험할 수는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



는 답변이었다.

장소나 장비에도 제약을 있을 터. 훈련을 할 때와 장비문제에 관한 어려움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강 부주장은 “비장애인부에서 1부 리거로 활약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피닉스도 열의를 갖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내 연세대 원주 스포츠센터의 경우 시간당 2만원의 대관료를 내야 하고, 원주 시내에 있는 장애인 체육관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 못해서 훈련 장소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휠체어도 특수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서, 장애인부 드림팀의 휠체어를 중고로 받아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대회를 참가해 스폰을 받는 금액과 조상현 교수님의 지원비 등을 아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여 답했다.



현재 비 장애인부 휠체어 농구 팀 중 유일하게 체대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피닉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장점은 순수하게 장애인 분들과 소통을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자신



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단점으로는 피닉스도 체대 소모임이 아니고, 학교에 체대가 없다 보니 앞서 말한 것처럼 체육관 대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꼽았다. 또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승부욕 발휘 등에서 아쉬운 모습을 종종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휠체어 농구는 올해 11월부터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의 주관으로 국내 장애인 스포츠 최초 리그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부 선수들에게 한정된 사항. 이에 강 부주장은 “비장애인부도 리그 등의 방식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 좋겠다. 아직 휠체어 농구 비장애인부는 미흡한 점이 많다. 휠체어 관리 또는 경기력과 대회 운영의 부분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장애인부의 활성화를 향한 뜻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휠체어 농구란 어떤 존재냐고 묻자, 군 제대 이후 3년 만에 만나는 옛사랑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2년에 원

주시장배에서 첫 우승을 거두며 제2의 황금기라 불렸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의 동기들이 모이는 올해, 조상현 교수님의 지도 아래 <피닉스> 제3의 황금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번 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작년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 6위, 장애인 아시안게임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던 강성민 부주장. 그를 비롯한 <피닉스>의 일원들은 직접 휠체어를 굴리며 휠체어 농구의 조력자로서, 그리고 비장애인부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마음을 읽으며 자원봉사까지 一石多鳥의 효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휠체어 농구’가 더 이상 특별한(?) 스포츠가 아닌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길 바라며 <피닉스>의 건투를 빈다.

글/

고금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연세대학교 <피닉스> 제공

코치(Coach)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리그는 올해로 약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4시즌에는 농구와 배구리그의 서포터즈가 출범하면서 대학스포츠 자체만으로도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고, 동시에 대학스포츠를 향한 관심 또한 늘어나 무탈하게 순항하고 있다.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視視各各(시시각각) 코너는 계속해서 대학스포츠의 구성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1월 호에서 대학스포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을 만나보았다면, 이번 3월 호에서는 각 종목별 코치들을 만나 지도자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기현서 (고려대학교, 축구부 / 이하 기), 신선호 (성균관대학교, 배구부 / 이하 신), 정원배 (인하대학교, 야구부 / 이하 정) 그리고 고승진(상명대학교, 농구부 / 이하 고), 총 네 명의 코치들이 해당 종목의 대표주자로 나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해주었으며, 선수 출신 코치라는 이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학스포츠를 비교해주기도 했다.

먼저 지도자의 입장에서 지난 '2014 시즌'에 대해 총평을 내렸다.

기 제가 대학선수였던 10년 전만 해도 일명 명문대와 비명문대 혹은 상위 학교와 하위 학교의 실력 차가 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축구 간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난 시즌엔 더욱 격차가 좁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라 해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를 치를 때마다 힘들긴 해도 매번 흥미진진했죠.

정 과거의 대학 야구는 지금의 프로 야구에 버금갈 만큼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지도가 떨어져서 보러와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난 시즌 역시 저희 야구부들끼리 1년을 보낸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과거 보다는 현재의 학생 선수들이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학야구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어요.

고 작년에는 국제대회가 많아서 같

은 조끼리는 두 번씩, 다른 조와는 한 번씩 경기를 치렀어요. 개인적으로는 양쪽 모두 두 번씩 만나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또 지난 시즌 농구의 경우, 서포터즈가 활발히 활동해줬는데 그 학생들 덕분에 학생선수들은 더욱 힘을 얻어 매 경기 열심히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춘·하계 리그전과 각종 대회를 통해 시즌을 보내는 대학야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목의 운동부는 모두 리그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스포츠 리그제'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과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리그제를 경험하며 관리하고 있는 코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기 리그제를 실시한건 정말 좋은 취지였던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선수들이 대학축구를 거쳐 프로에 진출하게 되는데, 1년 내내 시즌을 치르고 휴식기를 갖는 프로 축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걸 큰 장점으로 꼽아요. 리그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학 선수들이 단기간으로 펼쳐지는 대회를 치르고, 그 몇 번의 대회만을 위해 또 단기간인 준비를 하다 보니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매 주 펼쳐지는 경기를 위해 매일같이 철저한 몸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습관이 4년 동안 쌓이다보니 프로 진출 시의 적응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프로에서는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거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희박한데, 대학에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신 리그제 자체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 대학스포츠 리그가 선수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운동을 주로 하는 선수들이 모든 수업에 참여하며 경기를 치르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또 지난 시즌에는 경기 시간도 애매하게 잡혀있어서 더 아쉬웠어요.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대학 캠퍼스 안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해 이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스포츠를 향한 일반 학생들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학교 안에 체육관이 있다 하더라도 응원을 많이 오지 않기도 하고요.

고 모든 것에는 다 장, 단점이 있듯이 리그제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예전에는 대학 종별대회가 대부분 지방에서 열리니까 일반 학생들이 경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리그가 생기면서부터 대학 농구를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경기를 관람하면서 즐거워하고, 자연스레 홍보까지 되니 좋죠. 반대로 실력 차가 많이 나는 학교와 경기를 치르게 되면 패하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홈에서 질 경우 학우들이 보고 있으니 더 속상하고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1년 내내 진행되다보니까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리그제가 아닐 때에는 한 대회가 끝나면 한 달여의 시간이 있어서 아픈 선수들은 치료받고, 맘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경기를 치러야하니 부상자가 생기면 팀 전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운동선수는 운동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대학스포츠에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기 개인적으로 학생선수들이 인성적인 면을 많이 배우고 마음가짐도 잘 다져놓아야 운동선수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을 배제시켜선 안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수업에 참여하고, 일반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그러면서 잠시나마 대학 생활의 일부분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운동선수니까 운동적인 면에 더욱 집중을 하되, 학생 시절에만 겪을 수 있는 기회들도 겪는다면 금상첨화일거예요.

신 제가 12년 동안 프로생활을 해 본 결과, 프로는 운동만 해야 하는 직장인 반면 대학교는 운동, 학점, 연애, 친구 등 많은 것을 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성균관대)측은 선수들이 무조건 수업에 참여해야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물론 감독께서도 같은 주의이시고요. 학교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에 맞춰 운동시간을 잡고, 또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선수로서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C학점 이상을 받은 자만 경기를 뛸 수 있다고 못 박아놓은 건 위험한 조건이라고 봐요. 대학교 입학 전까지 공부를 해온 선수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하고 못 한 선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2015년부터는 C학점 이상을 받아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정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강조하는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운동선수이기 전에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업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인하대 야구부)같은 경우 선수들이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또 독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학업 부분에서 기초가 부족한 해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고 물론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예요. 아무리 수업에 잘 참여하고자 한다 해도 시험 당일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일반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운동과 학업 두 가지를 병행해야하는 선수들에게는 조금 무리한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시험기



기현서 (고려대학교, 축구부) 코치





신선호 (성균관대학교, 배구부) 코치

간도 문제고요. 운동선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규정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대학스포츠를 향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여러 활동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들어보았다.

기 아직은 학생의 신분엔 있는 선수들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관심을 가져준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 학교의 스포츠 매거진 'Sports KU' 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 있는 서포터즈들도 매번 경기장을 찾아와서 열심히 응원하며 선수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또 학생 기자단이 취재를 온 날이면 선수들은 수훈선수 인터뷰를 하고 싶은 욕심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뛰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생겨 경기력도 향상되고 여러 모로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어요.

신 서포터즈가 학교 곳곳에서 이리

저리 뛰며 대학스포츠를 홍보하고, 그러면서 일반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후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경기장을 찾아주기까지 하니 너무 감사하죠. 홈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 같은 학교 학생들이 보내주는 환호와 격려들은 선수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어웨이팀을 압박하기까지 해요. 그러니 서포터즈에게 더 많은 서포트를 해줘야할 것 같고,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들의 요구에 모두 응하고자 해요. 선수들이 고마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자단 또한 좋은 글로써 선수들의 이미지를 좋게 형성해주고, 인터뷰를 한다는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큰 경험이 되죠.

정 다른 종목과는 달리 야구의 인기가 프로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씁쓸합니다. 고등학교 야구보다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경기장은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고, 그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사실 힘이 안 날거예요. 대학 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 제가 학생선수이던 시절에는 대학이 대부분 잠실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 밖에 구경을 오지 않아서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야간 운동이 끝날 때까지 모여서 이벤트를 준비해주는 서포터즈 뿐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 응원해주는 학생들도 생겨서 부러우면서도 감사해요. 특히 저희 서포터즈들(상명대 서포터즈; SMASH)은 서포터즈상을 받을 정도로 열정적이거든요. 이제는 서포터즈가 없으면 힘이 안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대학스포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정원배 (인하대학교, 야구부) 코치



정원배 (인하대학교 야구부) 코치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대학 스포츠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또 학생선수들에게는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기 대학선수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고려대는 학교 측에서 가히 최고라 할 수 있는 지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때문에 운동장 여건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너무나 큰 욕심이겠죠? (웃음) 그래도 모든 운동선수들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부상을 조심하는 것이니 앞으로 더 큰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은 본인들이 좋아서 축구를 시작한 것이니 만큼 초심과 열정을 잃지 말고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려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무패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왕중왕전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 프로스포츠가 있는 종목의 경우, 대학교는 전문 직업선수로 넘어가기 바

로 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이 더 큰 사고력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라고, '마냥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미리 준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겠다.' 는 투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선수와 대학스포츠 모두를 발전시킬 거라 믿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과거의 성균관대 배구부가 다시 한 번 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수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다시 한 번 인성과 지식의 중요성도 강조해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머릿속에 온통 운동뿐일 테지만 나중에 야구가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리 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학생선수들이 제 말을 이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스포츠가 신명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학야구를 향한 서포터도 부탁드립니다. 인하대 야구부는 우승만을 목표로 시즌을 치를 것이고,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팀의 일원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 대학농구가 올해부터 8강제로 바뀌면서 두 개 팀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는 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를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멋진 모습을 펼칠 모든 팀을 응원해주세요!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지도자들. 이들을 통해 파헤쳐본 대학스포츠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네 명의 코치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출범 이후, 어두웠던 길을 지나 비로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며 빛을 보기 시작한 대학스포츠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글 · 사진/

박수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임예람(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삼성썬더스, 우리은행’ 장내 아나운서

박수미

2002~2003시즌 전주 KCC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장내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프로농구 최초 여성 장내 아나운서 박수미. 그녀의 첫 시작은 웅감했으니, 바로 20살 어린 나이에 프로농구 장내 아나운서로 데뷔를 한 것이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사회를 보는 것이 떨리지 않고, 오히려 너무 재미있었다는 그녀는, 지금도 새로운 종목으로의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경기장 안에서의 파워풀한 그녀의 외침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만큼 빛이 난다. 스포츠아나운서의 길을 꿈꾸는 예비방송인들의 귀감이 되는 그녀가 이번 달 ‘멘토를 만나다’의 주인공이다.



* * *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성우 목소리를 흉내 내는 그녀를 본 대학교 교수님은 그녀에게 장내 아나운서라는 자리를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게 된 그녀는 그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행운도 이미 그녀가 스포츠를 즐겨보고,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너무 어려서 오히려 잘 몰랐기 때문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사회를 맡았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덩덤해서 '나 왜 이렇게 안 떨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 연극반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고, 오히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애정, 체력, 전달력 3박자

13년 동안 프로농구와 핸드볼 사회를 맡고 있는 베테랑 그녀가 생각하는 장내 아나운서로서 지녀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일단은 해당 종목에 대한 애정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경기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전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도 긴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 체력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통 수영이나 필라테스를 즐

겨요. 또, 체력적인 어려움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더불어 그녀는 재능 부분 또한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경기장에는 관중 소리도 있고 음악도 있어서 방송처럼 깨끗하게 내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의 소리들과 잘 어우러져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달력의 기본이 되는 발음이나 발성도 중요한 것 같고, 목소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 쪽의 집안 분들이 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그걸 좀 물려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녀의 밤샘 독학은 마이크를 타고

다년간 농구코트를 누볐지만, 매년 조금씩 바뀌는 KBL규정으로 인해 그녀는 한시도 룰집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마이크를 통해 관중들에게 전달되는 그녀의 말은 모두 심판의 시그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처음 장내아나운서를 시작할 때는 정말 룰집을 달달 외웠어요. 또한 룰집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종종 바이얼레이션이나 파울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시간이 된다면, 짧게라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죠. 또, 심판 분들이 경기에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조금 과장되게 시그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시그널을 할 때도, 저는 그것에 대해 방송을 할 줄 알아야 하니까 항상 많이 공부를 하죠."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그녀는 2009년 또 한 번의 제의를 받게 된다. 태릉에서 아시아 핸드볼 유스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고, 주최 측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여성장내아나운서가 말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핸드볼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핸드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어요. 또한, 핸드볼은 아직 프로화되어 있지 않아, 장내아나운서의 역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태였죠. 한 번은 선수 엔트리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급하게 찾아 소개를 하기도 했었죠. 또,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선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아, 통역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도 그때 협회에서 잘했다고 인정해주셔서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그녀

그녀는 농구, 핸드볼에 이어 2015년 3월부터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다. 바로 신생 프로야구 구단 kt wiz의 장내 아나운서. "야구라는 스포츠도 워낙 좋아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야구단이다 보니, 새로운 이미지의 여자 아나운서를 찾으셨고, 운이 또 좋게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또 다른 도전을 앞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분명 본인이 좋아하는 일일 거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좋은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관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내공이 되고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시작된다는 노자의 명언이 있다. 이러한 싹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항상 배우려는 노력으로 꾸준히 가꾸고 물을 준 것이, 그녀를 '여성 최초 장내 아나운서'라는 멋진 수식어를 붙인 큰 나무로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글 · 사진/

안미현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나원건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아시안컵을 뒤흔든 송실대 듀오 박주호, 이정협의 스토리

슈틸리케호의 아시안컵 대표팀은 준우승이라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의 참패로 인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내용과 선수들의 투지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충분히 합격점을 받을 만했다. 준우승 성적표를 받은 아시안컵 대표팀에 대학 명문인 송실대 듀오, 박주호와 이정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주호는 브라질 월드컵에선 윤석영에 밀려 후보 신세였으나 아시안컵에선 브라질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성용의 파트너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된 이정협은 아시안컵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차세대 원톱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군데렐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김신욱



과 이동국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한국의 로벤 박주호

박주호는 고교 시절, 광운공고의 에이스였다. 왼쪽 풀백을 거쳐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지만 아마추어 시절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한국의 로벤'이라 불렸다. 광운공고의 에이스는 보통 광운대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박주호는 송실대를 택했다. 바로 윤성호 감독 때문이었다. 윤성호 감독이 지휘하는 송실대는 박주호의 진학 이후 무적 시대를 그리며 트로피를 휩쓸었다.

2007년 캐나다 청소년월드컵 대표팀 주장으로 선발된 박주호는 왼쪽 미드필더로 조별 예선 전 경



20140919 원광디지털대 vs 송실대

기를 소화했다. 기성용, 이청용, 신영록 등이 활약한 대표팀은 브라질과도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황금세대’ 칭호를 얻었다. 주장 박주호에 대한 프로팀의 관심은 당연했다. 그러나 허리 부상으로 인한 메디컬 테스트 탈락 후 J-2리그로 진출, 이후 가시마와 주빌로를 거치며 일본 리그를 경험하였고 FC바젤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분데스리가의 마인츠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박주호는 그간의 명성과 실력에 비해 국가대표에서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FC바젤에서 활약할 때에도, 마인츠에서 활약할 때에도 윤석영, 김진수 등 신예들이 더욱 중용되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박주호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와일드카드로 출전, 어린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박주호는 자칫 끝날 뻔했던 유럽 생활을 연장할 수 있는 병역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슈틸리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은 박주호의 국가대표 입지를 한층 강화시킨 소중한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군데렐라 이정협

동래고 출신의 이정협은 당시 송실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윤성호 감독의 부름을 받고 송실대에 입학했다. 대학교 1, 2학년 동안 이정협은 부상으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하였으나 3학년 때부터 서서히 경기에 출전하며 몸 컨디션을 올렸다. 2012년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득점왕을 거머쥔다. 이정협은 이후 다시 한 번 윤성호 감독의 부름을 받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했다.

데뷔 시즌, 2골 2도움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게 된 이정협은 윤성호 감독의 권유로 상주 상무에 입대하게 된다. 이정협의 성실성을 높이 샀던 윤성호 감독의 추천으로 상주상무 박항서 감독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주전 공격수 이근호의 주전 공격수 자리를 꿰차며 상주의 공격을 주도하게 된다.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을 앞둔 전지훈련 명단에 이정협을 선발한 것은 조금 의외였다. 이동국, 김신욱의 부상으로 대체 공격수가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이정협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았던 공격수는 수두룩했다. 전형적인 타겟 공격수가 없던 대표팀에 활동량과 함께 제공권을 겸비한 이정협은 그야말로 적임자였다. 제주 전지훈련에서 골 맛을 본 이정협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친선 경기였던 사우디전에서 이정협은 데뷔골을 터뜨리며 일약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비록 오만전, 쿠웨이트전에서는 조영철이 대표팀의 원톱을 담당했지만 첫 선발 출전한 호주전에서의 골은 이정협이 아시안컵 대표팀 부동의 원톱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전환점이었다.

사실 이정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의 이정협을 찾겠다는 슈틸리케의 말은 즉, 이정협 자신도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간 도태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우선은 국가대표급 공격진이 입대한 상주에서 주전을 꿰차야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두 번째다. 챌린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맞게 될 이정협의 2015년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20141001 한양대 vs 송실대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공포, 시행

KUSF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이 시행된다. KUSF는 2015년 1월 28일(수) 오후 4시,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총 8개 절, 81개 조로 구성되며,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의 공정성 강화 ▲대학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대학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유도 ▲대학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규정은 ▲체육특기자 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제공 등의 입시비리 행위 금지(제19조)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수능·내신 성적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제21조,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협의회 비승인 대회 참가 금지(제27조) ▲협의회 주최·주관·승인 대회 직전 2개 학기 C° 이상 취득 시 참가 가능(제25조, *1년 후 시행) ▲경기지도자 임기 최소 3년 보장(제39조) 등이다.

이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경기지도자 임기 보장과 관련된 제39조의 경우, 총회 시 제기된 일부 회원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 계기 언론사 체육 부장단 간담회 개최

2015년 2월 11일(수) 12시, KUSF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 계기 언론사 체육 부장단 간담회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개최됐다. KUSF 강신욱 집행위원장(단국대 체육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장달영 집행위원(법무법인에이팩스 변호사)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5개 언론사 체육 부장단은 이 규정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표하며, 대학스포츠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공유했다.



2015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동계워크숍

2015년도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동계워크숍이 2월 5일(목)부터 2월 6일(금)까지 1박 2일에 걸쳐 인천 영종스카이라인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제8기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명예기자 등 기자단 17인이 참석했으며, KUSF 기획총괄팀 3인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의 일일 강사로 동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재익 기자의 스포츠 기사 작성 특강, 대학스포츠 블로그 활성화 아이디어 회의, 대학스포츠 블로그 2월 기획회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과 회의 진행 이후 기자단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친목을 다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여준 기자단의 밝은 모습은 그들의 활동에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임을 예감케 했다.



KUSF 웹진 3월호

취재
후일담

이번 기사는 신입생에 대해서 쓰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생각 외로 자료가 너무 없어 막막했어요. 그래서 팀에서 일단 각자의 파트를 나눴습니다. 제 파트를 위해 이런 저런 사이트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선수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써 나아갔어요. 그동안 대학농구를 많이 봐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고교생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해서 앞으로 고교농구도 종종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웹진 기사를 쓰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동아리 기사는 개인 사정상 민수오빠가 인터뷰도 하고, 기사 쓰는 부분도 많이 맡았어요. 저는 편집과 흐름 및 추가 작업만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기사가 혼자 쓸 때 보다 훨씬 쉽게 완성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고, 실수도 줄고, 더 완성도 높은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웹진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금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파-토-파-토-파-토? 여러분 안 한다고 말 씀하셔도 해치지 않아요. 제발 읽고 대답만 해주세요...ㅠㅠ 강채영 선수는 사랑입니다. 국가대표 3차 선발전 흥하시길♡

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블로그 기자단 5기로 시작한 대학스포츠 기자 활동! 웹진 제5호부터 다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5라는 숫자와 무슨 특별한 연관성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ㅎㅎ 아직 입학예정자인 선수들의 정보를 찾는 과정과 독자분들께 생소한 휠체어 농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려 했던 과정이 약간 피곤했지만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호에도 다시 만나요~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웹진도 처음이고, 핸드볼 취재도 처음이라 마감 전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마감까지 끝내고 나니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흥분해요! 취재 전에 핸드볼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ㅎㅎ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김보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호는 제게 있어 더욱 특별한 취재였습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 2기로 활동했을 때 제일 처음 썼던 기사가 바로 12학년 신입생 기획기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웹진에서 명예기자로서 15학년 신입생 기사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언제나 '처음'이라는 느낌은 설렘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이번 취재를 통해 '초심'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2015년을 함께할 대학배구 새내기들을 만나보니 대학배구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인터뷰가 익숙지 않은 신입생들과의 만남에 저 역시도 조금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인연에 대한 설렘을 안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신입생 선수들 모두 대학리그에 대한 기대감과 당찬 포부를 지니고 있어 그들의 활약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지난해 핵심 전력이었던 4학년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느껴졌지만 만만치 않은 실력의 1학년들이 그 빈틈을 채워 주리라 확신합니다. 2015년 대학배구의 새로운 얼굴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힘찬 응원을 보내주세요^o^!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호에서는 처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취재를 진행했네요!! 처음이라 초반에는 인터뷰 대상 선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풀어나가면서 팀원들과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_* 이제 곧 대학리그도 시작될 텐데 다음 호에서는 더욱 좋은 기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